지난해 초 겨울, 그의 시가 나를 초대 했다. 뇌를 사랑하는 학자로서의 삶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시를 첫사랑처럼 떠받들고 사는 모습은 잘 알지 못했다.
〈낙타의 꿈〉을 읽고 나서 협곡을 지나는 슬픔을 본다. 메마른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의 시속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 나는 그동안 무엇하며 살아왔던가, 아물지 않은 상처와 함께 했던 인간으로서의 여정, 그 길이 끝내 보이지 않았는가, 아니다. 그는 외치고 있었다. 별이 울면 별이 울었다는 증거로 새벽 풀잎에 흔적을 남기곤 했다.
여전히 사람이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첫사랑 순정마냥 삶의 파편을 씹어 되새김하는 하나의 인간이다.
김영훈 원장의 시는 고뇌이자 철학이다. 강물의 숨결이 함께 흐르는 역사의 시간이다. 슬프지만 인간적인 그의 시를 독자들에게 내 놓는 이유는 그가 진짜 세상의 첫사랑이기 때문이다.

- 황용범-

비매품/무료

9 791196 601201 03800
ISBN 979-11-966012-0-1

한터

김영훈 시집

낙타의 꿈

한터

작가 소개



김 영 훈

1954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평생 학자로서의 길과 함께 정신과 의사로 살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삶을 영위하고 있다.